

제주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도민 인식과 태도에 대한 토론편

강경희 / 제주역사문화연구원

본 발표에서는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해양 관련 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인식, 태도를 분석한 후 활용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도에는 해양문화자원이 많지만 이를 인문자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활용하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해양을 둘러싼 수산업이나 해양산업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거나 해양생태계 보존에 치중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과 환경,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자원은 세계적으로 각 나라 및 지역에서 그들만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부각시켜 독창적인 특별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현상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해양자원의 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해양문화자원에도 인문자원을 포함하고 있고, 인문학적 분야에서 여러 측면으로 보존과 활용에 대한 방안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발표에서처럼 지금까지 해녀문화 이외의 해양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해양문화 측면에서 해양자원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정도를 고찰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한다.

1. 설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제주 도민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도민들의 해양자원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 설문에 응해 주신 도민들이 해양자원의 분류와 특징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는지요. 또한 도민들의 성별과 연령별, 제주시와 서귀포의 읍면동 구분 분석도 중요하지만, 제주 출신과 타 도시 출신,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 등 출신지와 거주지에 따라 해양 관련 자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설문과 분석을 통해서 해양문화자원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 정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 발표에는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2018년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는지요.

2. 유형 분류에 대해서

1) <표2> 제주 해양자원 유형의 문화콘텐츠에서 ‘민요’와 <표3> 제주 해양인문자원 유형 분류 생활자원 전승유산의 ‘민요’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전자는 민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인가.

2) 발표자가 설명했듯이 문화콘텐츠는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인문자원의 한 유형으로 문화콘텐츠를 포함하기보다는 활용 측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이 문화콘텐츠의 범주에 해양문화자원을 축제, 전시관 및 박물관, 영상물, 교육과 체험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도민들의 어떤 측면에서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해양자원과 문화콘텐츠의 연계성을 통해 보존과 활용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는 해양문화자원이 전부 문화콘텐츠로 활용가능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콘텐츠를 인문자원의 한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설문 자체를 복잡하고 난해하게 구성하기 보다는 자원과 활용 측면을 구분함으로써 설문을 명료하게 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정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3. 설문 내용에 대해서

1) 역사자원의 방어유산은 전근대시기부터 근대시기에 지역 방어의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근대시기와 근대시기는 어느 시기를 말하고 있는지요.

발표에 제시한 방어유적들은 조선 시대 이전에 구축된 것도 있지만, 방어시설로서 정비되어 이용된 것은 주로 조선 시대이다. 한편 해안동굴진지는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말기에 구축된 진지이다. 이러한 방어시설들을 전근대시기와 근대시기의 유산으로 파악해야 할 것인가.

2) 제주도내의 진성, 봉수와 연대는 9진 25봉수 38연대로 보고되고 있다. 해양문화자원으로 제시한 진성과 연대는 문화재로 지정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는가. 그렇다면지라도, 제주도내 해안마을에 남아 있는 진성과 연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진성과 연대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한층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4. 설문 분석 내용에 대해서

1) <표20> 현재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활용용도와 <표23> 향후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응답이 달리 나왔다. 각각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설명하고 있지만, <표20>과 <표23>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와 향후 해양문화자원 활용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찰은 현재와 향후 해양문화자원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2) <표12> 제주 해양문화자원 관련 항목 중요도 비교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요소’가 가장 높은 응답(41.7%)을 보여주고, ‘예술창작의 기본 소재’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게(42.3%)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비율을 잘못 기입한 것인지 설명 부탁한다.